

2012년 10월 2일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유통·화장품
한 주 따라잡기



▶ 서울역사 백화점 롯데가 운영 (매일경제 2012.09.25)

한화그룹이 서울역 내 콩코스백화점 운영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롯데쇼핑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역 운영권자인 한화역사는 콩코스 매장을 롯데쇼핑에 20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지난주 말 롯데쇼핑과 구두합의를 끝냈으며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 롯데쇼핑은 콩코스백화점 자리에 도심형 롯데아울렛 입점을 검토하고 있음. 같은 역사 안에 있는 롯데마트까지 합치면 하루 20만명이 오가는 서울역에 일종의 롯데타운이 형성되는 셈. 서울역사 내 롯데마트(2만 6,340㎡)와 롯데아울렛(2만879㎡)을 합치면 롯데가 점유하는 면적은 4만7,219㎡(1만4,284평). 역사 총면적(9만5,170㎡)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 한화역사가 계열사인 갤러리아를 빼고 경쟁업체인 롯데아울렛을 입점시키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경영 효율화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결단으로 분석됨. 이로써 롯데쇼핑은 서울의 심장부 격인 서울역에 첫 도심형 아울렛을 오픈하게 됨. 업계에서는 서울역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서면 같은 역사 안에 있는 롯데마트와 시너지 효과가 커 서울역이 롯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

▶ 롯데쇼핑, 인천터미널 용지 매입 (매일경제 2012.09.27)

신세계백화점이 자사 매출액 4위(작년 기준)인 인천점을 경쟁사인 롯데쇼핑에 넘겨주게 됨. 작년 4월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매장 면적을 기존 4만9,500㎡에서 6만6,000㎡까지 늘렸고, 차량 1,000여 대를 수용하는 2만 5,500㎡ 규모의 주차빌딩도 신축함. 또 경인지역 최초로 루이비통, 프라다 등 13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인천 지역 1위 백화점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만들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옴. 그 결과 인천점은 신세계가 전국에 보유한 백화점 중에서 매출 4위를 기록했고, 롯데·현대·신세계를 합친 전체 순위에서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자랑함. 인천점 지하 1층에는 이마트 인천점이 영업 중인데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2017년 계약이 종료됨. 롯데쇼핑이 이번 계약을 통해 얻은 효과는 상당함. 신세계백화점이 인천 지역에서 퇴진하면 당분간 해당 상권을 롯데그룹이 독점하기 때문. 현재 인천에는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이 영업 중이며, 천 송도에 추진 중인 '롯데타운'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노릴 수 있음.

▶ 롯데, 하이마트 인수일정 차질 (야데일리 2012.09.26)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롯데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차질이 생김. 하이마트는 26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었으나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주총 일정을 내달 31일로 연기함. 당초 하이마트는 이날 주총에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를 비롯해 김치현 부사장, 박동기 상무 등 롯데측 임원을 하이마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회사명을 롯데하이마트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음.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 영업양수를 하려면 공정위에 사전 결합신고를 해야함. 사전심사기간은 120일 이내지만 공정위의 내부 검토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음.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롯데쇼핑의 기존 점포와 하이마트 양판점의 결합이 경쟁제한요인을 발생시키는지 검토 중”이라며 “롯데로부터 관련자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함.

▶ 현대백화점 자존심 찾기 명품매장 2배로 늘린다 (매일경제 2012.09.25)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최근 1층에 루이비통과 10여 개 화장품 매장을 열며 오픈함. 영업면적이 3만3,800㎡(1만242평)에서 5만2,600㎡(1만5,939평)로 55%나 증가함. 이번 증축의 핵심은 명품 매장이 기존 6,600㎡(2,000평)에서 1만4,850㎡(4,500평)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 국내 백화점 중 유일하게 3개 층에서 명품 매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특징. 이는 롯데 에비뉴엘(약 3,000평)보다 넓고, 갤러리아 명품관(약 5,100평)보다 약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간 작은 규모.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본점 증축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영업면적 3만㎡ 대비 5.6%가량인 1,700㎡(약 515평)를 늘릴 계획.

▶ 4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98`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매일경제 2012.09.27)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홈쇼핑만이 나홀로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R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밑돈 98로 집계됨. 업태별로는 홈쇼핑(138)만이 전분기(134) 대비 상승하며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인터넷쇼핑몰(103), 백화점(102)이 기준치를 다소 웃돈 반면 편의점(98), 슈퍼마켓(96), 대형마트(87)는 기준치를 하회함. 홈쇼핑(138)은 추운 날씨로 야외활동이 감소해 안방쇼핑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홈쇼핑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쇼핑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웅진코웨이도 매각 중단 (한국경제 2012.09.27)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함에 따라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이 중단됨. 웅진그룹이 추진해왔던 웅진폴리실리콘, 웅진패스원 등 다른 계열사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단됨. 향후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계열사 매각이 백지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의 자산과 채권·채무 행위가 동결되고 자산 매각 계획은 향후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재조정됨.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지분 30.09%를 보유한 최대 주주. 웅진홀딩스는 사모펀드(PF)인 MBK파트너스와 웅진코웨이 경영권 매각협상을 타결지었으며 다음달 2일 매각대금 1조2,000억원을 넘겨받을 계획이었음. 법원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웅진그룹과 MBK의 매각협상을 인정할 지 여부는 불확실. 웅진그룹과 MBK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도 매각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락앤락, 업계 최초 아프리카 시장에 첫 발 (이데일리 2012.09.27)

락앤락은 동아프리카 경제 교류 중심지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단독 플래그십 스텍을 오픈함. 국내 일반생활소비재 기업으로서의 첫 진출. 케냐 플래그십 스텍은 밀폐용기부터 주방·조리용품, 리빙·수납용품까지 총 2,0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주방생활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고급 로드숍 형태. 전세계 170여개 락앤락 매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인테리어를 통해 케냐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구매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계획. 락앤락은 2005년 현지 바이어를 통해 케냐에 진출한 이래 지난 6년간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56.8%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케냐는 중·동부 아프리카와 아시아·중동을 잇는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동아프리카 중심 항구인 몸바사항과 한해 660만 명이 이용하는 나이로비 국제공항이 위치해 '동아프리카의 허브'로 불리는 매력적인 시장임.

Index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Korea Retailers			Global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Korea Retailers	주간 절대 등락률(%)	주간 절대 등락률(%)		
KOSPI	1,996.21	-0.31	롯데쇼핑	-2.1	호텔신라	-4.6	Wal-mart	-0.9
KOSDAQ	523.78	-1.45	현대백화점	5.5	락앤락	-6.5	Carrefour	-7.3
유통업	499.77	-0.66	신세계	-6.5	웅진코웨이	-23.7	Tesco	-2.4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3.0	이모레퍼시픽	0.0	Wangfujing	2.8
KRW/USD	1,112.00	-0.76	CJ오쇼핑	4.6	LG생활건강	1.6	Parkson	2.6
KRW/JPY	1,433.17	-0.20	GS홈쇼핑	-4.7	하이마트	5.1	Sears	-4.3
KRW/CNY	176.94	-0.42	현대홈쇼핑	3.9	신세계인터내셔널	7.3	PE&G	-0.1

자료: Bloomberg, Datastream, IBK투자증권